

본 로고는 서울동산교회의 3자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이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두 날카로 날아오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그이름, 예수 그리스도
www.dongsan21.org



제1회 비전컵 VISION CUP 어린이 축구대회

도봉구 지역 교외 연합과 교외학교 부흥을 위한

예선 (리그전)
2007년 10월 7, 14, 21일(주일) 오후 4시~6시

본선 (결승, 3~4위전)
10월 28일(주일) 오후 4시~6시

주최
4개 교회 (반석감리교회, 백운제일교회)
서울동산교회, 창동제일교회 교외학교 연합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네파(정장영, GMD) 요르단(공일주, 김현숙) 중국(이정삼, 유인연, 유혜경, 김성남, 김선희) 카자흐스탄(최진규) 터키(강그레이스) 파키스탄(Zaman Anjum) 푸에르토리코(김혜진, 한희숙)
기독교 월간교신 기독교북한선교회 셈의료복지재단(북한선교재단) 중동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행공장)

구역이 지원하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중국<김장국 - 정1 / 이산지 - 정2, 정5> 터키<진요한 - 정4, 정6, 노원1, 노원3> 필리핀<정순성/손은경 - 청3, 중왕1, 성복1> 광동교회<안익서 - 노원2, 강의>
군산 성복중앙교회<최상권 - 북부, 성복2> 사랑의 교회<김희준 - 청9> 회정교회<오수록 - 소망, 남부> 양평석장교회<도봉1> 황성장로교회<조원래 - 중왕1, 중왕2>
교회개혁실천연대<도봉2, 청7> 수도권미래교회포럼<청8>



서울동산교회
Seoul-Dongsan Church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서울동산교회 T.02) 900-2232

전도주보 제3권 2007년 9월 30일(39호)

발행인: 김대진/편집인: 오유미/주보팀장: 최구택

김대진 목사

행복을 선택하세요 (신30:15-20)

만약에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면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19절)” 생명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신33:29).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몇

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고 갔습니다(요4:50).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믿고 행동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그 시로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행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행복은 쟁취해야 할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16, 18, 19절에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을 선택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나옵니다(20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행동이 나옵니다. 행복한 행동을 심으면 행복한 습관이 나옵니다. 행복한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옵니다.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L · o · v · e · l · y · · · c · h · u · r · c · h · · · w · i · t · h · · · J · e · s · u · s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팔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녀들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팔자 사나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고통중에 출생하여 그 이름조차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구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다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대상4:10).

둘째로 행복은 간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이 생겨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나면 행복한 감정이 생깁니다. 성경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의 노예로 살라고 하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 아들을��우며 행복을 찾기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갑니다. 눈앞에 바라던 것이 하나씩 성취되어갔지만 그는 좀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 쉬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되어서야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현재의 만족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신30:20)” 오늘 내가 필요한 것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때 주어집니다.

한가위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둘이서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냄새가 향기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설교 하이라이트) 예수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사·랑·과·은·예·가·넘·치·는·예·배

주일 1·2부 예배

1부: 9시 30분/2부: 1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로의 부름

기도인도 1부 김종국 집사

2부 최병호 장로

찬 송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시교독 제33문 사편 150편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헌찬송 25장 면류관 가지고

봉헌예물

봉헌기도

* 말씀봉독 로마서 16:25-27 (신 262면)

찬 양 1부 호산나찬양대

2부 헬렐루야찬양대

광고&성도의 교제

말씀선포 “신비한 기독교”

헌신의 기도

* 폐회승영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 축 도

*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33문 시편 150편

인도: 헬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중: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인도: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회중: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趨아 찬양할지어다

인도: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회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인도: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회중: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인도: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회중: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헬렐루야

주일3부 찬양예배

오후 2시 30분

인 도 김준석 강도사
기 도 박순배 집사
성 경 잠 19:1-29 (구 930면)
설 교 김대진 목사

집언강해 35

“화 침는 비결”

축 도 김대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성 경 신 11:8-17 (구 279면)
설 교 박 신 강도사

기 도 배경희 집사

가족찬양 이상현 집사

찬 송 101장, 382장, 228장

목요열린예배

오후 1시 30분

인 도 김대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설 교 박 신 강도사

기도인도 박 신 강도사

찬양인도 김준석 강도사

새벽기도회

매일새벽5시

인 도 김대진 목사

사랑의 동산

가을나들이

동산교회 20년 유래 한나여전도회 가을나들이 처음이였다.

하늘도 아는 양, 사람이 죽도록 오던 비도 멈추고

어쩜 그다지도 맑고 깨끗한 가을하늘을

한날의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소풍을 했다.

웬일일까.. 시원한 강바람, 산바람, 꽃바람을 맞으며

하염없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을 속에 무르익는

오곡백과 풍요로운 계절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소풍이건만...

참 좋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송희야 쉬어가자... 장권사야 쉬어가자...!

여기저기 쉬는 그 모습 웬일인지 마음이 찡했다.

나그네 인생.. 아침과 저녁이구나...

황혼에 접어드는 한나여전도회 회원들을 보며

하나님 품으로 갈날이 가까워짐을 실감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곡식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천국곡간에 들어가기를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글쓴이 / 장승희 권사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후 5:9)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Our Goal to please God!

균형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산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루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신교단에 속해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서울동산교회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유대인도 헬라인도 기난한 자도 부우한자도 죄인도 병자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꾼다.

▶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친 기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꾼다.

▶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며 노인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의 사역에 집중함으로 중형교회로서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 공동체, 사역공동체를 꿈꾼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대진
사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피택장로: 김성웅 문용현
운퇴장로: 강장환
부교역자: 박 신 강도사(교육/행정/학사관/1교구)
김준석 강도사(음악전담/인터넷/2교구)
김성애 전도사(심방/새자신부/기초양육)
이우리 전도사(중고등부/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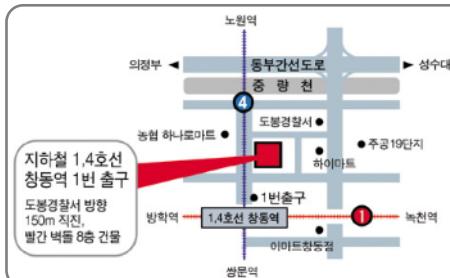
■ 서울동산교회 안내

주소: 우 132-899,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전화: 02) 900-2232

홈페이지 : www.dongsan21.org

<찾아 오시는 길>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10.7)

1부 : 송정경 집사 2부: 정재만 장로
3부: 청년부헌신예배 수요: 변안수 집사

예배모임안내

• 주일 1부	09:30	7층	• 영아부	11:30	6층
• 주일 2부	11:30	7층	• 유치부	09:30	6층
• 주일 3부	14:30	7층	• 유초등부	09:00	6층
• 목요예배	13:30	7층	• 중고등부	11:00	6층
• 노방전도(목)	14:30	6층	• 청년부	13:30	6층

[10월 목회계획]

7일 연한창양예배 청년부헌신예배 새기족부수련회
14일 찬양예배 성경암송대회(주관: 바울남전도회)
21일 에스더헌신예배 전도간증집회(김길복권사) 하반기구역장세미나
28일 종교개혁주일 찬양예배 당회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